

## 알버타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 증대

2026년 4월 20일

알버타산 원유의 한국 수출 시 적용되던 3%의 관세를 철폐하는 신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주수상은 이명구 대한민국 관세청장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알버타산 원유에 부과되던 3%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와 대한민국 관세청의 공동 성명을 통해 캐나다에서 선적된 희석 비투멘이 캐나다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요 무역 장벽 해소와 더불어 알버타 에너지 생산자들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알버타주의 대한민국 원유 수출액은 파이프라인 확충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0% 이상 급증한 약 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정유시설의 수요에 따라 수출액은 연간 4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알버타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강화하고 현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인 한국에는 책임 있게 생산된 신뢰할 수 있는 원유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알버타산 원유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알버타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알버타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며, 알버타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

“본 공동 성명은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알버타 주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 행정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거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명구 대한민국 관세청장

“트랜스 마운틴(Trans Mountain)은 아시아 고객과 캐나다 원유 생산자를 연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아시아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 년 기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웨스트리지 부두에서 수출된 물량의 65% 이상이 아시아로 공급되었습니다. 캐나다, 알버타,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알버타산 원유의 한국 수출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크 마키(Mark Maki), 트랜스 마운틴 최고경영자(CEO)

대한민국은 2025 년 기준 양자 교역액이 총 18 억 달러에 달하는 알버타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알버타는 원유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파이프라인과 해안 터미널로 운송하여 전 세계 시장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게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간략한 정보

- 2025 년 알버타주의 대한국 총 수출액은 14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석탄, 니켈, 프로판, 소고기, 돼지고기 및 목재 펄프였습니다.
- SK, HD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등 한국의 주요 정유사들이 현재 알버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SK 에코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캘거리에 캐나다 본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알버타주는 1974 년부터 한국의 강원특별자치도와 오랜 기간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알버타 한국 사무소는 서울 소재 주한 캐나다 대사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8 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 관련 뉴스

- [태평양을 넘어 시장 확대](#) (2025 년 4 월 18 일)



뉴스 보도

**미디어 문의**

샘 블랙킷(Sam Blackett)

Sam.Blackett@gov.ab.ca

587-589-6048

주수상실 대변인